

# 옷에 인물을 그려내는 '의상감독'

의상감독 이진희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이 최근 유행하는 링 귀걸이를 귀에 주렁주렁 끼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현대판 신데렐라를 다룬 드라마의 주인공이 매일 수백,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옷만 입고 나오면 어떨까요? “어휴, 조선시대에 저런 귀걸이가 웬 말이야”, “의상이 엉망이라 드라마에 집중이 안 되네!”와 같은 반응이 나오겠지요.

TV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는 관객의 작품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장치이자, 작품의 컨셉을 명확히 해주는 의상! 의상은 드라마와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상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의상감독입니다. 의상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상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 ▼ 의상감독이 하는 일은?

드라마와 영화 속 캐릭터를 빛내주는 의상을 만드는 사람!

의상감독이란?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 연출에 필요한 의상을 만드는 사람

의상감독은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 연출에 필요한 의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패션디자이너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패션 디자이너

는 여러 사람들이 입을 옷을 제작합니다. 반면, 의상감독은 작품 속 ‘특정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연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만드는 일을 하지요. 따라서 누구를 위해 옷을 만드느냐는 차이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작품 속 의상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살펴봅시다.

## ※ 작품 속 의상이 제작되는 과정

①대본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성격·특징·사연을 분석

②등장인물의 성격·직업·작품 속 장면·배우의 이미지를 고려해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

③배우의 신체사이즈 측정 후 의상 제작

의상감독이 작품 제의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본을 반복해서 읽는 작업입니다. 작품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함께 작품촬영을 진행하는 다양한 감독과 모여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일입니다. 이후 연출 감독과의 협의를 통해 의상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지요. 협의한 방향에 맞는 의상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선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틈틈이 자료수집도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상 제작입니다. 의상 디자인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배역을 맡은 배우와 만나 의상이 배우의 이미지와 잘 맞는지, 배우가 생각한 캐릭터에 어울리는지 협의·상의합니다. 그 다음 배우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 의상을 제작하지요. 이렇게 완성된 의상은 촬영 현장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의상 감독은 촬영 현장을 꼼꼼히 살펴며 촬영기간 동안 의상에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 **의상감독이 되려면?** 제작사 입사 및 실무경험 쌓아  
발탁 채용! 대학에서 의상 관련 전공하면 유리!

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을 제작하는 일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섬유디자인 △연극 △미술 분야  
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의상감독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의상감독이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연기획사·영화·드라마 제작사의 채용전형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드라마·연극 등의 제작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뒤 의상감독으로 발탁 되는 방법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상감독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장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을 연출하고, 옷을 제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의상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따라서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의상디자인 △섬유디자인 △연극 △미술 분야를 전공한다면 의상감독이 되는 데에 유리합니다.

▼ **의상감독,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의상은 예쁘기만 하면 된다?  
NO! 배우의 이미지와 작품의 몰입도도 고려돼야!

의상감독은 배우의 얼굴색·이미지·분위기뿐만 아니라 작품의 몰입도까지 고려해 의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의상감독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옷을 만들면 작품의 분

위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작품 속 의상은 단순히 사전적인 옷의 의미를 넘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하며 캐릭터의 연기가 작품 속에서 빛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진희 의상감독)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과 ‘성균관 스캔들’의 의상제작을 담당한 이진희 의상감독은 작품 속 의상이 단순한 옷의 의미를 넘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상을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사연을 그려내는 사람 ‘의상감독’. 의상을 이용해 캐릭터와 작품의 감칠맛을 살리는 의상감독이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의상 제작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